

# 회의록

회의일시	2023. 5. 30.(화) 10:00	부서	기획처	장소	원격회의(ZOOM)
참석자	○ 의장 : 유대현 ○ 부의장 : 김희수 ○ 평의원 : 김건홍, 김만길, 김영삼, 이동현, 전창기, 정승희, 정윤미, 조재혁, 한동남 (가나다 順)				
회의명	제62차 대학평의원회				
의안	1. 한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심의 2.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정상화 관련 의견				

■ 유대현 의장의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에 이어 김건홍 학생평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

## [안건1] 한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심의

###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 유대현 의장은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설명을 요청함.
- 이규현 기획혁신팀장은 한세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함.
- 이동현 학생평의원은 해당 규정은 신학생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요건인데 신학과 내에서도 협의가 된 내용인지 질의함.
- 이규현 기획혁신팀장은 신학부 교수회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을 설명함.
- 김건홍 학생평의원은 해당 조문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신학부 지원자를 모수로 두고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려는 방법임을 설명함.
- 이동현 학생평의원은 신학부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세례교인 여부마저 확인하지 않는다면 신학생의 정체성을 논할 수 없기에 해당 안건의 재검토를 요청함.
- 유대현 의장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함.
- 참석위원 모두 동의함.

## [안건2]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정상화 관련 의견

- 유대현 의장은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학교법인 한세대학교(이하 '법인')의 임시이사 파견 상황과 법인의 정상화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 김희수 부의장은 교수협의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학교에 좋을 것이 없고, 우리 대학이 올해 하반기(9-10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어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의 정상화를 진행해야하며, 그 조속한 시일은 구체적으로 8월 이내이길 희망함.
  - 정상화의 방향은 법인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을 따르되, 기존 이사회의 파행으로 임시이사 파견되었으므로 정이사 추천 시 중전 이사들의 의견은 최소한으로 반영되길 제안함.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 한동남 동문평의원은 조속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동의하나, 정상화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통을 통해 시기와 방향을 정해야하며 종전 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반대한다고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현 안건인 학교법인 정상화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의미하며, 다른 부분의 정상화는 학교에서 계속 진행해야 함을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정이사 체제의 전환은 동의하나, 내부 규정화,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등과 같이 정상화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정상화에 대해 고민과 소통이 필요함을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정상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현 안건에서 임시이사들이 생각하는 정상화는 정이사 선임이므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법인에 회신해야 함을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전환한 타학교의 사례를 볼 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상화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이사 체제에서도 우리가 부족했던 내부 규정, 정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에 한계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언급한 부분의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음과 회신문에 정이사 선임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함.
- 김희수 부의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앞두고 정이사 선임이 시급하며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처리는 선임될 정이사 및 선출될 총장과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임시이사가 생각하는 정상화는 정이사 선임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이사 선임을 요청합니다. 정이사 선임 후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정이사가 속히 선임되어 규정 개정,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가 약 3개월이 되었고 타 대학의 사례들을 볼 때 빠르면 1년,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유지되는데 임시이사 체제가 각종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을 설명함.
- 김희수 부의장은 임시이사장과의 면담에서 학교에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다른 학교에 달리 각종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들었고, 이에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총장의 부재는 악영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임시이사장과의 면담에서 그 내용과 함께 총장을 추천할 수 있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내부 규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셨다고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임시이사 체제가 1년 이상 길어진 학교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현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유가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정상화(정이사 선임) 시기와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임을 설명함.
- 전창기 직원평의원은 교내 구성원들이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알기 어렵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조속히 정이사 선임을 요청한다’는 것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 유대현 의장은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 김영삼 직원평의원은 교수협의회는 회의를 했지만 직원노조에서는 아직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원평의원으로 참석했지만 직원노조의 추천으로 참여했기에 직원노조의 의견 취합이 필요함을 설명함.
- 김건홍 학생평의원은 의장, 부의장은 임시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소극적이므로 조속히 정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후에 총장 선임 등의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직원평의원은 정상화에 찬성하지만 직원노조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입장으로 회신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우리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인 구성원으로 참석을 한 것이며 노동조합 대표, 교수협의회 대표로 참여한 것이 아님과 임시이사장이 법인 정상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너무 급박함을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임시이사가 와 있는 모든 학교에서 정이사 체제를 원하고 있으며, 임시이사들은 정상화의 첫 단추인 정이사 선임이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임을 설명함.
- 김만길 직원평의원은 공문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이해를 하지만 법인에서 5월 31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음.
- 정승희 학생평의원은 학교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정이사 체제 전환에 찬성하되,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요하며 재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함.
- 정윤미 조교평의원은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동의하며 종전 이사들의 책임은 지양해야 함을 설명함.
- 조재혁 교원평의원은 정승희 학생평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명함.
- 김건홍 학생평의원은 정승희 학생평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학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그 첫시작인 정이사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함.
- 한동남 동문평의원은 조속한 정이사 체제 전환에 동의하며 구성원 소통을 통해 방향성이 정립 되길 요청한다고 설명함.
- 유대현 의장은 동의제청으로 갈지, 표결로 갈지 물음.
- 김희수 부의장은 표결에 동의함.
- 조재혁 교수평의원은 제청함.
- 유대현 의장은 회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며, 줌 채팅창에 1안과 2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1안 : 조속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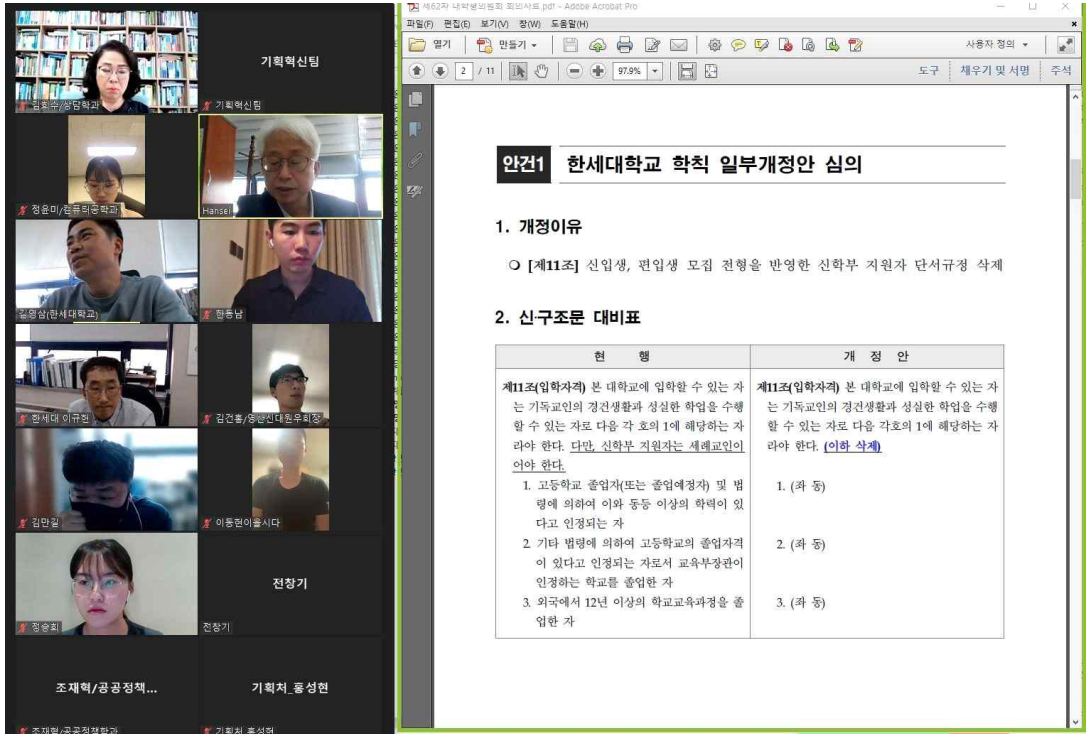
2안 : 임시이사 체제에서의 정상화 진행

○ 유대현 의장은 표결 결과 의장을 포함하여 회의 참석의원 11명 중 1안 7명, 2안 3명, 기권 1명으로 1/2 이상 득표한 1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선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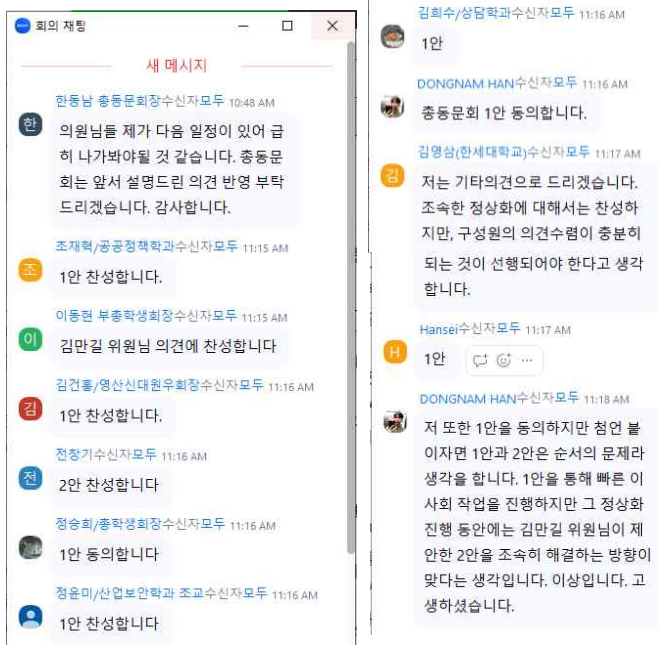
■ 유대현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회의를 마침.

붙임 : 서명지 1부. 끝.

[회의사진]



[표결 결과]



[1안]

김건홍, 김희수, 유대현(대화명 Hansei), 정승희, 정윤미, 조재혁, 한동남 (이상 7명)

[2안]

김만길, 이동현, 전창기 (이상 3명)

[기권]

김영삼 (이상 1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유세권' (Yoo Se-gwon), written in a cursive style.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김현수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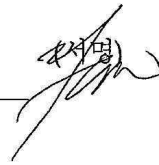
김건홍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김만길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김영순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이동현 이 동 현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진행기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정승희\_\_\_\_\_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정윤미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김기석 (서명)

(앞장에서 이어짐)

2023.05.30.(화)

1. 대학평의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한동남 (서명)

